



# 암수술 2년간 49%급증, 역대 최고 성과

## 전문 암진료 시스템을 위한 시설 확충, 전문 의료진, 서비스 개선이 맺은 결과

고려대 안산병원의 6대 암수술이 지난 2006년에 비해 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다. 암수술 건수의 급증은 안산병원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인력의 보강, 전문적인 진료 시스템이 가져온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에게 가장 큰 위협인 암을 치료하는데 있어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암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선정한 6대 암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의 수술 건수를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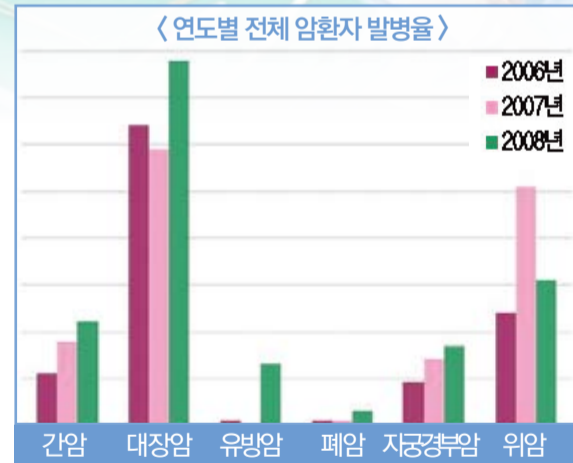


안산병원은 이미 안산지역을 넘어 주변지역인 시흥, 반월, 군포 뿐만 아니라 경기 서남부,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한 충청, 전라권 역에서까지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일 진료 실적 신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암 수술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장 드라이브를 보여줘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암수술의 경우에는 2007년 30%의 성장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해 의료계 여건이 좋지 않았던 2008년도에도 14%에 가까운 성장을 거두고 있어 의료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안산병원을 찾는 전체 암환자도 35%가 늘어나 내실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 위암, 대장암, 간암 수술 건수 꾸준한 증가세

부분별로 살펴보면 위암의 경우 29%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2007년도에는 210%가 넘는 성장을 보여줬다. 또한 대장암 역시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암 발병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간암의 경우에는 200%의 성장률을 달성해 지속적으로 환자가 늘고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폐암, 자궁경부암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환자가 늘고 있으며 여성암 발병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 같은 경우도 수술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체 실적을 비교했을 경우에도 6대 암 수술 건수는 2007년은 30% 증가, 2008년도는 14% 증가, 6대 암 입원환자는 각각 12%, 2%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안산병원에 입원

한 전체 암환자의 경우에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7%가 늘어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암수술 전문성 확보

이와 같은 실적은 우선 환자들에게 암수술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며,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 의료인프라의 개선이 맺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작년 대형병원들이 암 전문화를 선언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한 환자 선점에 대한 우려와 기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환자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이는 안산병원의 인적 인프라와 암수술 전문 의료진의 확충 뿐만 아니라 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진료를 펼치고 전문적인 수술을 통해 의료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이같은 토대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환자들이 암수술을 위해 직접 안산병원을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병원의 전문성이 환자들에게 알려진 것이며 안산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환자가 찾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안산병원이 펼쳐온 환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의료 환경 개선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국제수준의 의료역량 선도

현재 안산병원은 국내외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교수급 의료진 13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의료진 중에는 해외파 의료진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선진적 의료 서비스를 국내에 선보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해외의 의료를 국내 여건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대학병원만이 가능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임상적 실질적인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와 같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인적 인프라 구축은 암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펼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현재 안산병원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간호등급을 최상인 1등급으로 높이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의 의료를 펼치기 위해 JCI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앞으로도 암수술과 암환자의 급증 뿐만 아니라 안산병원의 성장을 위한 또 다른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Contents



2p  
베스트 헬스케어  
안산병원 신경외과



3p  
헬스가이드  
복합운동



4p  
부서탐방  
분만실



4p  
당신이 안산병원의 경쟁력입니다  
산업의학과



5p  
동호회탐방  
볼링동호회



6p  
협력병원  
한빛여성병원

베스트 헬스케어

# 뇌, 척추, 신경 및 만성통증 치료를 책임진다 고려대 안산병원 신경외과

## 최소침습수술과 통증질환 국내 선도적 진료 연구역량 진료, 연구파트별 전문체계 구축



고려대 안산병원 신경외과(과장 박정율)는 뇌, 척수와 신경, 뇌혈관, 그리고 신경 주위 조직에 발생한 병변을 진단하고 치료함과 동시에 두부 및 척추 외상과 퇴행성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진료과로, 1985년 병원 개원과 더불어 환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며 25년을 지역사회와 함께 해왔다. 이제는 지역사회를 넘어 국내 전 지역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찾는 신경외과 진료의 요람이 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개설된 안산병원 신경외과의 전신, 고대의대 신경외과학 교실은 뇌혈관질환, 뇌종양, 척추질환, 운동장애(파킨슨병, 진전증), 통증질환 및 소아 신경질환 등 신경외과계 질환 전반에 걸쳐 선진역량을 축적해 온 대한민국 신경외과의 역사이자 산실이기도 하다. 안산병원 신경외과 역시 이러한 신경외과의 전당에서 태동돼 지금까지 끊임없는 진료술기 개발과 선진술기의 도입으로 진료 및 연구

역량을 배가시키고 있다.

### 질환별 전문클리닉 운영해 환자고통 치유의 길 열어

신경외과에서는 현재 난치성통증, 파킨슨병, 뇌졸중 등 각종 질환별 전문클리닉을 운영해, 보다 세분화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고로 인한 신경, 척수, 뇌 손상 또는 뇌졸중이나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유발된 통증은 치유되기 어려워 난치성 통증으로 분리된다. 최근 이러한 난치성 통증을 경험하는 환자가 전체 인구의 1%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대다수의 환자들은 부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오히려 더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난치성통증 클리닉'은 이러한 난치성통증 완치를 위해 조기부터 세밀한 진찰과 진단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도하고 있다.

### 최상의 수술과 치료, 파킨슨병클리닉

또한, '파킨슨병 클리닉'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함께 병의 진행정도를 매우 상세한 분석을 통해 약물요법이나 수술요법 중 최적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 파킨슨병을 치료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에 대한 진단을 보다 정확하게 내리도록 노력하고, 병의 진행정도를 매우 상세히 분석, 평가하여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과적인 수술까지 철저히 분석해 약물요법이나 수술요법 중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 및 수술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클리닉은 같은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나 가족을 위한 모임을 주선해 환자의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

### 척추클리닉, 뇌혈관클리닉, 최소침습수술연구회까지

이밖에도 대표적인 허리, 목 디스크인 요추, 경추간판 탈출증과 척추협착증 치료를 전담하는 '척추 클리닉' 또한 신경외과의 대표적인 클리닉이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허리와 목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사람들은 척추질환하면 디스크를 떠올리지만 이러한 통증은 다른 많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통증은 디스크, 즉 추간판탈출증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척추분리증, 척추만곡증, 염증, 종양, 골절 등 다양한 질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더욱 정확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진단이 중요한 것이다. 안산병원 신경외과에서는 병의 진행정도와 환자의 통증에 대한 감수성여부, 환자의 직업, 나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바늘을 이용, 국소적으로 통증을 경감하는 치료로 척추관절차단술,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추간판내전기소작술(IDET), 경피적수핵제거술(Nucleotome) 등 다양한 치료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수술까지 실시해 환자의 질환에 따른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뇌출혈과 뇌경색, 혈관협착증과 같은 위급한 질환들에 대해 혈관내 중재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실시하는 '뇌혈관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신경외과는 고려대 최소침습수술연구회 및 센터 개소를 위시해 임상각과와 최소침습수술에 관한 협진체계 구축과 더불어 국내 최소침습수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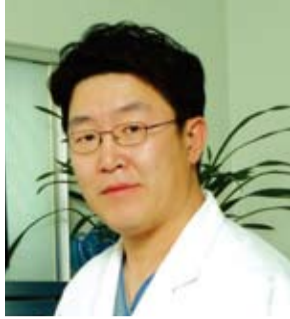
-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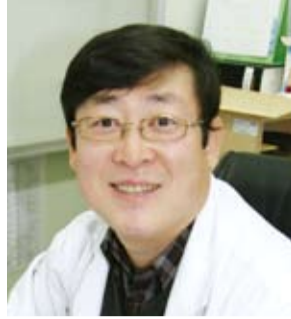
- 2면에 이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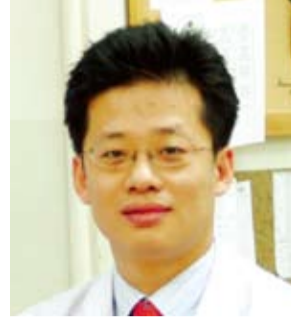
박정욱 교수



임동준 교수



김세훈 교수



김상대 교수

**최고의 전문의들로 구성된 의료진, 각 파트별 전문체제 구축**

고대 안산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최신의술에 대한 열정으로 늘 첨단시술법에 앞서는 역량을 구축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통증과 운동장애, 간질 등과 관련된 정위기능 신경외과 분야 등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욱 교수는 여러 국제적 의료기관에서 연수교육을 받으며 15년 이상 다양한 통증의 최소침습수술과 중재치료를 연구, 개발해 국내외 주요 학계에서 높은 치료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았고 국내 최다시술(3만례 이상) 기록을 보유하며 선도적인 진료역량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연평균 15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고 매년 30회 이상의 국내외 초청강연을 하며 해당 전문분야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독보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박정욱 교수는 현재 안산병원 진료부원장과 더불어 신경외과장, 최소침습수술연구회장, 세계신경외과학회 대의원 등을 겸직하고 있다. 임동준 교수는 뇌혈관

질환 및 뇌종양 환자의 진료와 연구에 있어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실력자로 미국 Arizona의 Barrow Neurological Institute(BNI) 등에서 연수하고 귀국해 안산병원 외과중환자실장을 비롯하여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실행위원장 및 운영위원, 대한신경외과학회 고시위원 등을 맡고 있다.

**국내외 활동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의료진**

김세훈 교수는 미국 Stanford대학 신경외과 연구교수 및 New Orleans Ochsner의료재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퇴행성 척추질환 및 척추종양 연구에 있어 탁월한 연구를 주도했으며 척추질환에 관한 전문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현재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정회원, 미국 AANS/CNS 척추 및 말초신경질환 분과학회 회원 등으로 활발한 학회 활동을 하며 국내외 의료진들과의 최신 술기에 대한 지견 교환을 통해 보다 나은 치료법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뇌수두증, 중증뇌손상, 모야모야 질환 및 척추이분증 등과 같은 소아신경계 질환과 뇌종양 수술을 전담하고 있는 김상대

클리닉	담당의료진	예약가능일
난치성통증, 동통, 파킨슨병	박정욱	화요일
뇌혈관	임동준	화요일 오후
척추	김세훈	월, 수, 금 오전
신경외상, 소아	김상대	화요일 오전

교수는 일본 Jikei대학에서 소아신경외과 질환에 대한 연수를 하고 소아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특성에 맞춰 소아 신경외과 질환과 뇌종양, 뇌혈관기형 질환 및 척추통증 환자 치료에 선진술기를 부단히 도입, 선보이고 있으며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이사 및 종신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국내 최고의 신경외과를 위하여**

각 파트별로 최고의 의료진이 포진돼 질환별 세분화·전문화된 진료가 가능한 안산병원 신경외과는 모든 환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과 설문지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지속적인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시에 관련 간호사들도 합심하여 모든 환자들을 가족같이 돌보는데 전력하고 있다. 이제는 뇌, 척추와 신경 및 만성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교수진과 첨단의료장비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넘어 국내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찾는 신경외과로 발돋움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다. 🏥

**겨울동안 움츠렸던 몸, 봄 운동으로 쫓~ 펴자!**

헬스가이드

**걷기 등 가벼운 활동은 환절기 신체균형회복에 효과적  
관절염, 당뇨, 심장병 환자는 무리한 운동 피해야**



봄이 되면 사람의 몸도 자연처럼 신진대사가 증가하고 활동도 늘어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봄으로 넘어가는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생체 리듬이 급격히 바뀌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며 인체의 저항력과 면역성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 때 조금씩 움직이지 않으면 환경 변화에 더 적응하기 어렵게 되고 식욕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균형을 잃게 되므로 가벼운 운동으로 추운 겨울동안 잔뜩 움츠렸던 근육을 펴주고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해 혈액 순환도 향상시키며 인체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좋다.

**걷기, 자전거타기 등으로 가볍게 봄맞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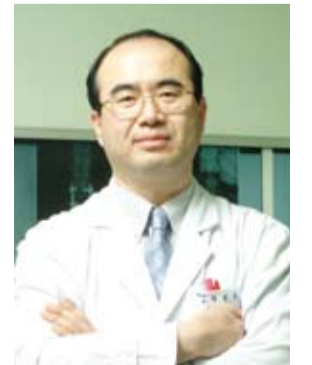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적어지는 반면 근육이 약해지고 골밀도는 감소돼 관절의 운동범위도 작아진다. 이런 상

태에서 봄이 됐다고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과격한 운동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으므로, 운동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체력수준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 봄철 운동으로는 부담 없이 가볍게 할 수 있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체지방을 소모하는 유산소 운동이 좋다. 빨리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타기, 등산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대근육군을 지속적으로 움직여 몸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처음에는 주 2~3회 20~30분가량씩 가벼운 운동으로 몸에 활력을 주며 한 달쯤 지나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운동량을 서서히 늘리는 것이 좋다. 운동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20분 이상,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달 이상 꾸준히 해야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며, 특히 비만인 경우는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지속해야 에너지 소비가 증가되어 체중과 체지방률이 감소하므로 금방 지치지 않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령불문 관절·인대 부상 주의해야**

겨울 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다가 단시간에 높은 효과를 보고자 의욕에 넘쳐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척추나 관절, 인대 등에 손상을 가져와 근육통, 아킬레스힘줄 파열, 반월상연골판 파열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부상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운동으로 자전거타기, 달리기와 등산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달리기나 등산은 발을 뺄 때마다 오랜 시간의 운동으로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커져 자신도 모르는 새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충격 흡수력이 좋은 폭신한 뒤꿈치가 있는 운동화를 신고, 내리막을 이동할 때에는 오르막 보다 무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에 보폭을 작게 하거나 쉬운 코스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근육들이 굳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열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온 몸의 근육들을 충분히 풀어주고 관절의 가동범위를 확장시켜주는 스트레칭은 필수다.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하건 스트레칭으로 목, 허리, 팔, 다리 관절을 가급적 천천히, 가능한 한 넓은 범위로 움직이며 5~10분 정도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



도움말 | 고려대 안산병원 정형외과 박정호 교수

#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산모들의 안식처, 분만실



분만실에 들어서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다른 핑크빛 유니폼이다. 엄마가 되는 순간의 포근함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분만실만의 배려인 핑크빛 유니폼. 분만실은 간호사 9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으며, 산모의 출산 뿐만 아니라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산모와 관련된 모든 질환의 종합병원인 것이다. 산모가 다급하게 아파 응급실을 찾으면 그 곳에서 처치를 하기 보다는 분만실로 이송되어 처치를 하게 되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능숙하게 응급상황을 해결해가는 것이다. 시각을 다투어야 하는 수술을 직접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일반병실에 가기 힘든 위중한 산모는 분만실에서 처치를 받기도 한다. 즉 인공호흡기만 없는 중환자실인 셈이다. 한명의 환자만 해도 정신을 쏙 빼놓기에 충분한데, 여러 가지 상황의 환자가 겹치면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매우 침착하면서 강건한 어조로 우선순위를 빨리 파악해서 업무를 해결한다는 분만실 간호사의 답변에 무언가 뿌듯한 마음과 함께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런 이

야기를 하면서도 잔잔한 미소를 거두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일은 힘들지만 일하는 분위기가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가장 최근에 분만실에 발령을 받은 간호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부서에 왔을 때 적응하기도 좋았으며 분만실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모두에게 힘들지만 서로서로 챙겨주고 배려해주기 때문에 행복한 분만실이 아닐까.

### 환자들이 건강하게 퇴원하는 순간 보람 느껴

안산병원 분만실은 안산이라는 위치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살아있는 산모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한 예인데,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출산 전 관리가 되지 않아 고위험 산모가 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다. 고위험 산모가 되어 지역에 산부인과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아 오는 환자는 안산지역을 넘어 경기서남부지역 및 충청도지역은 물론이고, 경기북부지역이나 강원도지역에서 오는 경우도 허다하고 한다. 지방에 그냥 있었다면 사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 안산병원에서 최신 의료시설과 전문적인 의료진을 만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퇴원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많은 치료가 요구되고 이에 따른 진료비부담도 늘어나게 되지만 사회사업팀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 고위험 산모에게서 출산된 아기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소아과 진료를 꾸준히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엄마들이 아기를 데려와 “여기가 너의 고향이다” 라며 아이들에게 농담을 건넨다.

### 안산병원의 또다른 보석, 분만실

분만실에서 말하는 2009년의 또 다른 야심찬 포부가 있다. 환자의 통증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위로를 해주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의료인의 자세인데 여러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찾아오니 1~2가지 어학능력 향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환자와 의료진간의 의사소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와 상관없이 통증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노력이 안산병원의 또 다른 보석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글,사진 원내기자 한혜영(간호부)

## 〈당신이 안산병원의 경쟁력입니다〉

# 최고의 팀으로 인정받은 안산병원 보건관리 지도요원들

## 보건관리 국고지원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 'S' 등급 받은 산업의학센터



노동부에서는 매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 아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건강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하여 의료기관 등 민간보건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하여 근로자의 보건관리 국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 산업의학센터에서도 이 사업에 매년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업 평가에서는 참여한 의료기관 중 전국 최고 등급인 "S"급을 받아 우수 의료기관으

로 인정받았다. 보건관리 국고지원 사업은 산업위생관리기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보건지도요원이 사업장을 1년 동안 일정한 주기(2개월마다)로 방문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BMI 등 간이검사를 측정하고 건강상담을 하고, 금연, 식습관, 운동, 절주 등 건강증진 지도를 전개한다. 또한, 직업병 등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 상태를 점검하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위험요인을 관리하도록 지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매년 전문적인 평가반을 구성하여 업무체계, 기술지원업무, 사업성과 등 종합적인 업무수행능력(SHARP Index)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익년도 사업 참여 평가시 반영하는 기준이 된다. 안산병원이 추진한 사업의 지난해 평가결과는 전국에서 참여한 70 여개 의료기관 중 운영시스템, 기술지원업무, 기술지원성과, 사업장만족도 등 평가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취득하여 전국평균인 507점을 크게 넘어선 861점으로 최우수기관에게 부여하는 "S" 등급을 받았다. 또한, 올 해 정부의 보건관리 용역사업은 참여 신청 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전략 등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참여 기관을 선정했는데 안산병원 산업의학센터에서 제출한 제안서는 이 심사결과 500점 만점에서 450점을 얻어 전체 1위로 선정되었다. 산업의학센터 산업위생관리기사 김승남·강봉구, 권형미·이희정 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봉구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보건관리 국고지원 사업

은 사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즉시 나타나는 수익성 못지않게 언제든 우리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유효고객을 유지하여 유지하는 병원 마케팅 전략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 한 지도요원 선생님들은 항상 근로자의 건강을 생각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보건관리자의 전문가 입장에서 먼저 접근하게 됩니다.” 라며 보건관리대행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형미 간호사도 “처음엔 소극적이고 거부감을 나타내던 근로자들이 기름때 묻은 손으로 반갑게 맞이해주고 건강에 관심을 가지며 지도에 따라 줄 때 보람을 느낀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은 보건지도요원들은 취약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리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고대 안산병원의 따뜻한 이미지를 전하는 홍보전도사로서도 보람을 느끼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글,사진 원내기자 송보라(간호부)



# 경쾌한 스트라이크 소리와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

일반적으로 병원이란 조직에는 매우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해야 병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매우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타 직종, 타 부서와의 교류가 그리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호회는 직종 간, 부서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는 좋은 수단이 된다. 다른 동호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볼링 동호회”도 회원간의 단합을 추구하며 운동을 통한 심신 단련과, 유대 강화로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창설된 동호회이다. 2008년 10월 간호부내에서 발의하여 생김 따끈따끈한 신설 동호회로서 그만큼 회원들의 열정도 높은 모임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간호부에서 발의한 동호회이지만 모든 직종의 직원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여러 직종의 정회원 33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18일 회칙과 동호회 명칭 '스트라이크'를 정하고, 회장에는 이정숙 간호관리팀장을 추대하였으며

발기 총회 및 첫번째 정기 모임을 2008년 12월 23일 오후 6시 중앙동 롯데 볼링장에서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날 스트라이크 팀은 “드림 300”을 꿈꾸며 모두가 화이팅을 다짐하였고, 현재 3월 3일까지 6차례의 정기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날로 향상된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최고의 점수는 시설팀 오영동 교직원이 기록한 243점이나 앞으로 날로 기량이 향상되어 “드림 300”에 가까워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정기 모임은 매월 1, 3주화요일에 있으므로 관심 있는 교직원은 부담 없이 동참하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볼링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운동이므로, 건강도 챙기고 동료도 알아가는 재미를 스트라이크에서 찾기를 희망하며 그날을 위해 다시 한 번 “아자아자 스트라이크 파이팅”

가입문의 보호요원실 강지훈(총무) 내선 5368  
글,사진 원내기자 박경섭(시설팀)



고대안산병원 볼링 동호회 (스트라이크)

##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한 기적의 심장수술

### 안산병원-인터알리아재단,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무료 심장수술 사업 실시

NEWS



안산병원이 아시아 어린이들을 위한 심장수술을 이어가 화제가 되고 있다. 안산병원은 인터알리아재단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심장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섯 아이를 선정, 아이들과 가족들을 한국에 초청하고 심장병 수술을 실시했

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일 캄보디아 심장병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시작할 한국 땅에 도착했다. 캄보디아에서 다섯 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고 도착한 이들은 환영 나온 안산병원, 인터알리아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안산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다. 한편 이번 심장병 수술은 고려대 안산병원 흉부외과 박형주 교수와 소아청소년과 장기영 교수가 실시했으며 정밀검사 후 심장수술이 진행됐다. 박형주 교수는 이미 국내에서 오펜가슴 수술로 인정받는 실력가일 뿐만 아니라 소아 심장 수술에서도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고 있으며 장기영 교수 역시 소아심장 중재술을 통한 심장병 치료로 많은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이

어주고 있다. 이번에 초청되어 심장수술을 받은 아이들은 총 다섯 명으로 15살 휴어(Huor Khemarin)를 비롯해 빈메이(Vinh Mei Suong), 호른(Horm Syreneth), 휴이(Huy Weavlinh), 2살 리민(Li Minh Thong)까지 총 다섯 명이며 아이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낙후한 농촌지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다섯 아이 중 네 명은 심실중격결손으로, 그리고 한 명은 동맥관 개존증으로 모두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수술을 통해 건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초청에는 특별히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 이들의 부모들도 함께 이루어져 아이들에게 큰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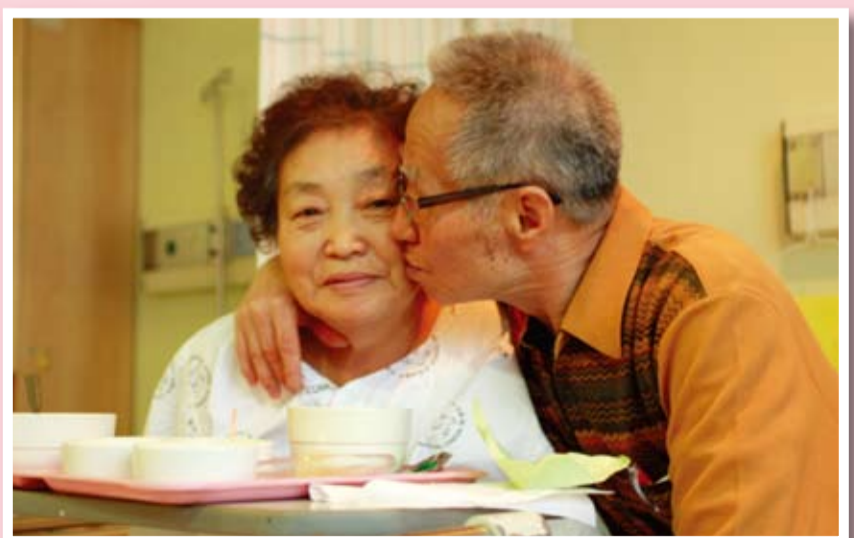
'새벽까지 꺼지지 않는 불빛'  
모두가 잠을 청한 밤이지만 생명을 위해 꺼지지 않는 불빛을 안산병원이 이어갑니다.



'나의 안산병원 로비를 소개합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로비이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니까 더 이쁜것 같아요.



'당신에게 따뜻함을 전합니다'  
손을 맞잡은 나의 온기가 당신에게 치유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작은희망



'사랑해요, 당신'  
빨리 치료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서 집에 가야죠.  
아프지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 - 어느병동에서

사진제공: 안산병원 사진동호회 KHOTO

협력병원

# 여성을 위한 전문병원 한빛여성병원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한빛여성병원(원장: 최성희)은 안산시 역의 대표적인 여성 전문병원 중 하나다. 여성의 달 3월에 신


축 개원한지 8년째를 맞이하는 한빛여성병원을 찾았다. 2001년 3월에 개원한 한빛여성병원은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51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최적의 진료환경을 위하여 최신 초음파진단기, 맘모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신생아실, 모유수유실, 맛사지실, 좌욕실, 물리치료실, 요가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카페,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 여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한빛여성병원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성전문병원으로서 특화와 전문화에 성공하여 환자들로부터 두터운 사랑을 받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병원은 최성희(고대교유 77학번) 원장을 중심으로 6명의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현재 산과, 부인과외 4개과를 비롯해 마취과, 소아과가 개설되어 있다. 또한 임신부가 임신의 전 기간 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여 건강한 아기를 분만하도록 진료하는 산과클리닉, 진단적 복강경검사와 수술, 자궁경부암 등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부인과클리닉, 소아종합건강진단과 예방접종, 가성콜레라 등을 다루는 소아클리닉, 태아에게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태아교실,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신생


아클리닉 등 다양한 클리닉이 있다.

### 산모들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춰다

병원 개원과 동시에 차별화된 시설과 유용한 산모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 후 아기의 건강과 산모의 신체회복을 위하여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가족구성방식의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가 보편화되면서 산후조리원이 산모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폐렴과 장염의 감염원이라는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저항력이 약한 신생아들을 위해 완벽한 위생관리와 소독관리를 하고 있으며 소아과 전문의의 정기 회진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유지되고 있다. 이 병원의 최성희 원장은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할 것이며 가족처럼 아끼는 사랑으로 고객을 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정신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생명을 만들 것 입니다” 라며 병원이 추구하는 생명의 존중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여 참의료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글, 사진 원대기자 강봉구(산업의학과)

## 새로운 심장을 얻은 용정의 희망이야기

용정이네 가족은 외할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동생들과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용정이에게는 밝은 미소와는 어울리지 않게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어린 시절 심장 수술을 받았다. 지금도 수술 때문에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하지만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 때문에 병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게 현실이었다. 더욱이 2003년과 작년 아버지까지 뇌출혈로 쓰러지면 서 용정이네 가족은 시련 아닌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위기속에서 꽃이 피듯 희망의 단비가 용정이네 가족을 밝혔다. 지난 해 안산병원을 다니면서 'Save the Children' 재단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치료를 시작한 것이다. 힘들어 했던 가족들에게 한줄기 빛이 된 작은 도움은 모두에게 미소를 선사한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선물이었던 것이다. 안산병원에서 심장병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갔던 용정이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런 용정이네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의미로 안산 아오백 중앙점에서는 화려한 저녁식사를 마련했다. 비록 세상 모든 가족들에게 평범한 외식일지는 모르지만 가족이 모인 식사이기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어린 용정이가 비록 아팠던 몸이고 어려운 가정환경이었지만 사회의 작은 도움들이 용정이에게는 세상의 따뜻함과 모두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앞으로 용정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와 희망을 걸어본다. 



OUTBACK STEAKHOUSE




내게도 이런일이 생긴다면.... 영화 '노팅힐'

## 영화같은 사랑을 꿈꾼다면 이들처럼 사랑하라



영화 '노팅힐' 을 보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내용이지만 한번쯤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 영화는 영국 런던의 노팅힐이라는 곳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남자가 우연히 헐리웃의 정상급 여배우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휴 그랜트(윌리엄 태키)와 줄리아 로버츠(안나 스콧)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다소 편한 결말과 작위적 구성이 아쉽지만, 두 주연 배우의 매력을 잘 살렸고, 여기에 재밌는 조연들을 포진시켜 지루함 없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다. 알렉 볼드윈이 줄리아 로버츠의 남자 친구로 잠깐 나오기도 한다. 조연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너무 특이하지만

나에게도 저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이 영화의 개인적인 관람 포인트는 많은 명대사, 그리고 요즘은 웨딩반주에도 많이 사용하는 Elvis Costello의 'She' 라는 노래에 있다. 'She'는 엔딩 곡으로 나오는데 영화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또한 후반부에 기자회견 장면은 모 카드사에서 CF 패러디를 할 정도로 감동적인 장면이다. 그 CF는 나에게 또 한 번 영화를 보게 한 계기가 되었다. 줄리아 로버츠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다. "Don't forget. I'm also just a girl, standing in front of a boy, asking him to love her." 영화이긴 하지만 사랑에 빠진 지구의 여자들은 모두 이런 마음일까? 이 영화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소중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정말 재밌는 장르다. 개인적으로 맥 라이언과 톰 행크스의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을 본 후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즐겨보게 됐다. 로맨틱 영화의 공통점으로는 역시나 '나도 영화 같은 사랑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일이 영화의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말도 안되겠지만 꼭 한번 나에게도 일어날 것만 같은 ... 

글, 사진 원대기자 박준우(시설팀)

## SK나이트, 백혈병 환아에 치료비 전달

### 치료비 및 메이크업세트 등 500만원 지원



꽃미남 2명이 고려대 안산병원을 찾아 선 행을 베풀었다. 93병동에 있는 김은희 양을 보기 위한 것.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최재현)은 3월 12일(목) 박정울 진료부원장과 중앙혈액내과 성화정 교수, SK 나이트 김동민 선수,

변현수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농구팀 SK 나이트의 후원으로 김은희 환아에게 500만원 상당의 치료비와 옷, 메이크업세트 등을 전달했다. 김은희(17, 여) 양은 평소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해왔으나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부종 증상을 보여 내원해 혈액암의 일종인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환아는 현재 면역 수치가 낮아 격리병실에서 홀로 힘든 항암치료를 받으며 탈모와 부종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성격으로 항상 밝게 웃으며 모든 치료 과정을 잘 견뎌내고 있다.

## 교수상조회, 아이들에게 장학금 전달해

### 경제적 어려움 겪는 아이들에게 큰힘, 지속적인 관심 이어갈 것



안산병원 교수상조회(회장 : 박정울 교수)는 2월 27일 안산병원에서 지역 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이와 가족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

식은 그 동안 안산병원 교수상조회에서 모금한 회비를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적 여건이 좋지 않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 마련된 행사로 총 10명의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선정된 가족들은 안산시청 가족여성과의 도움을 얻어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가족들이 병마와 싸우는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으로 추천을 받아 도움을 받게 됐다. 또한 전달된 장학금은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헌혈로 어려운 이웃에 사랑 나눠요~

### 사랑 나눔 헌혈행사, 교직원 및 내원객 200여명 동참



안산병원은 지난 2월 25일(수)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동안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직원뿐

만 아니라 내원객도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 200여명 넘는 참가자들이 사랑의 헌혈에 동참했다. 이번 헌혈 행사에서 모아진 헌혈증은 병마로 고통 받고 있는 소아암 환자들에게 전달돼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행사를 마련한 안산병원 박정울 부원장은 "헌혈은 가장 작은 곳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라며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 지하철에서 건강을 지키세요!!

### 간호봉사단 2009 지역사회 봉사활동 본격 시작



안산병원 간호봉사단이 2009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3월 10일과 13일, 간호봉사단은 지하철 안산역과 중앙역을 방문하여 역사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

으로 혈압, 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 등 봉사활동을 개최했다. 지하철에서 내려 분주히 어딘가를 향하던 주민들은 봉사단을 보고 발길을 멈추어 혈압·혈당을 측정하고, 건강상담을 한 후 관련 책자를 받아듣고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오늘은 황재한 기분이다.' 라며 봉사단을 반겨주었고, 역사 직원들도 '겨울동안 봉사단을 못 만나서 궁금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며 봉사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환자를 위한 모든 것을 배운다

### 신입간호사 연수교육 실시



안산병원은 지난 3월 5일(목) 본관 2층 대강당에서 '2009년도 신입간호사 제 2차 연수교육' 을 실시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150여명의 신입간호사들은 안산병원 간호부의 현황 및 간호윤리, 병원감염예방 및 대처 등을 익히며 간호사로서 가져야할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약 8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번 교육에서는 김정숙 간호부장의 '안산병원 간호부 소개 및 환자 권리보호와 간호윤리' 를 시작으로 중앙공급실 이경진 수간호사의 '응급간호', 이종란 교육수간호사의 '투약 및 약품관리', 101병동 정춘희 수간호사의 '의사소통술', 마취통증의학과 정애자 수간호사의 '수술 전/후 간호', 김수현 감염관리사의 '병원감염예방 및 대처' 그리고 이 호 안전관리자와 이경금 보건관리자의 '소방안전 및 안전관리' 등 신입간호사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 친절서비스를 책임진다, 친절리더 2기 발대식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병원의 새로운 문화를 전할 것



안산병원이 친절리더 2기를 출범시키면서 새로운 병원문화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산병원은 지난 3월 23일 소강당에

서 '친절리더 2기 발대식' 을 갖고 2년 동안의 캠페인 및 활동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지난 친절리더 교육을 수료한 친절리더 2기와 함께 총30명이 참가해 2009년 진행할 친절리더 활동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도 함께 했다. 특히 작년 택시기사를 상대로 진행한 친절캠페인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올 해도 행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 한국아이닷컴, 희귀질환 환우에 2천만 원 전달

### '팔로사징증' 앓고 있는 미선에게 전달



안산병원은 지난 2월 5일 한국아이닷컴과 공동으로 '팔로사징증' 을 앓고 있는 김미정(2개월) 양에게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

다. 이번 후원금은 고려대의료원과 한국아이닷컴이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난치병 환자 돕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금된 것으로 전달식은 박정울 진료부원장, 소아청소년과 장기영 교수, 한국아이닷컴 조상현 상무이사을 비롯해 미정의 아버지 김응훈, 어머니 황순화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현재 미정이는 폐동맥 폐색증과 함께 팔로사징증으로 인해 태어나서부터 줄곧 병마와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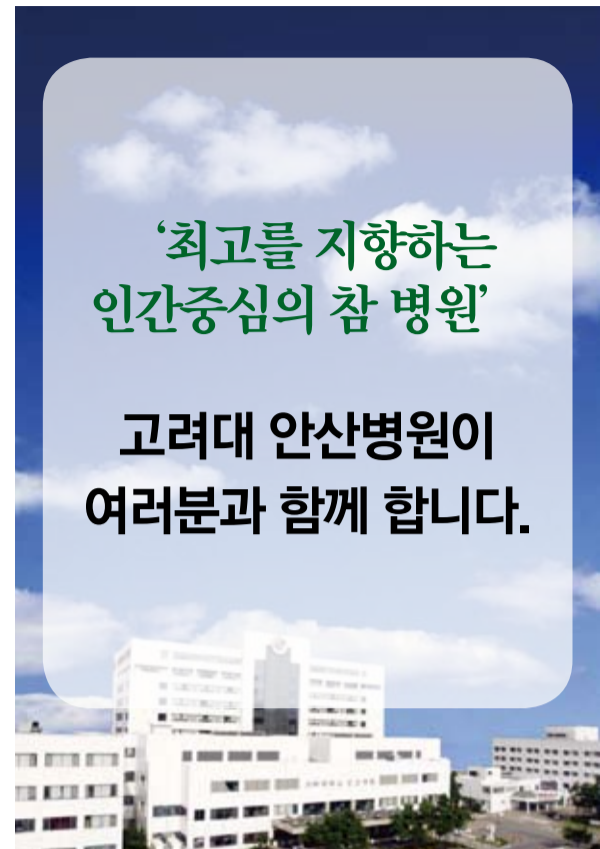
## 송태진 교수, 美 AHPBA 연례회의에서 연구성과 발표



안산병원 감담취외과 송태진 교수는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개최된 2009년 AHPBA Annual Meeting에 참가해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는 'The molecular mechanism of HIF-1 independent VEGF express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cell line' 을 주제로 한 연구로 구로병원 최세별 교수, 안암병원 김정운 교수와 함께 발표했으며 곧 해외 저널에 출판될 예정이다. 한편 송태진 교수는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1 *신약진료의사			2 진료예약: 031412-5101			3 응급의료센터: 031412-5381			4 기준: 2009년 4월 1일		
과별(전과)	의사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과별(전과)	의사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소화기	*최재현	혈, 목	대장 소장질환, 내시경치료	정신과 (5140) (안과) (안과)	*김용구	혈, 화	(재외연수) 우울, 불안증, 공황장애, 정신분열병, 스트레스, 알콜중독	신경과 (5150)	*박은희	수, 목	뇌졸중, 치매(백 오전-치매 재진환자만 진료)
	*이성우	화, 금	위 식도 소장질환, 소화관운동질환		*김성우	수, 목, 금	수		파킨슨, 이상운동장애(백 오전-파킨슨 재진환자만)		
	*이종식	화, 수, 금	간 해장 장애질환		*김성우	수, 목, 금	화, 목		두통, 어지러움, 간질		
	*김동일	화, 목	간염, 간염, 간염(보1주)		*김성우	수, 목, 금	수, 목, 금		장선과 질환		
내과 (5010)	*김정환	화, 금, 토	간염, 간염, 간염(보1주)	안과 (5100) (안과) (안과)	*김승현	화	시시, 역사, 소아안과, 녹내장, 안검안과	이비인후과 (5170) (안과) (안과)	*김승현	화	두경부질환, 갑상선암, 인후두질환, 음성장애
	*김재훈	화, 목, 금	소화기질환(보3주)		*김성우	수, 목, 금	(소아) 소아안과, 녹내장, 안검안과 (소아) 소아안과, 녹내장, 안검안과		*최준	수, 목, 금	당뇨병, 갑상선, 갑상선암, 갑상선염
	*김정환	화, 목, 금	소화기질환(보3주)		*김성우	수, 목, 금	당뇨병, 갑상선, 갑상선암, 갑상선염		*최준	수, 목, 금	당뇨병, 갑상선, 갑상선암, 갑상선염
	*김정환	화, 목, 금	소화기질환(보3주)		*김성우	수, 목, 금	당뇨병, 갑상선, 갑상선암, 갑상선염		*최준	수, 목, 금	당뇨병, 갑상선, 갑상선암, 갑상선염
내과 (5020)	*김정환	화, 목, 금	소화기질환(보3주)	피부과 (5180) (안과) (안과)	*김정환	화, 목, 금	피부마취, 아토피, 피부암, 백반증, 레이저	비뇨기과 (5190) (안과) (안과)	*김정환	화, 목, 금	비뇨기과, 신장, 방광, 전립선, 요로질환
	*김정환	화, 목, 금	소화기질환(보3주)		*김정환	화, 목, 금	비뇨기과, 신장, 방광, 전립선, 요로질환		*김정환	화, 목, 금	비뇨기과, 신장, 방광, 전립선, 요로질환
	*김정환	화, 목, 금	소화기질환(보3주)		*김정환	화, 목, 금	비뇨기과, 신장, 방광, 전립선, 요로질환		*김정환	화, 목, 금	비뇨기과, 신장, 방광, 전립선, 요로질환
	*김정환	화, 목, 금	소화기질환(보3주)		*김정환	화, 목, 금	비뇨기과, 신장, 방광, 전립선, 요로질환		*김정환	화, 목, 금	비뇨기과, 신장, 방광, 전립선, 요로질환
소아청소년과 (5090)	*김정환	화, 목, 금	소화기질환(보3주)	재활의학과 (5200) (안과) (안과)	*김정환	화, 목, 금	재활의학과, 재활치료, 재활치료	가정학과 (5200) (안과) (안과)	*김정환	화, 목, 금	가정학과, 재활치료, 재활치료
	*김정환	화, 목, 금	소화기질환(보3주)		*김정환	화, 목, 금	가정학과, 재활치료, 재활치료		*김정환	화, 목, 금	가정학과, 재활치료, 재활치료
	*김정환	화, 목, 금	소화기질환(보3주)		*김정환	화, 목, 금	가정학과, 재활치료, 재활치료		*김정환	화, 목, 금	가정학과, 재활치료, 재활치료
	*김정환	화, 목, 금	소화기질환(보3주)		*김정환	화, 목, 금	가정학과, 재활치료, 재활치료		*김정환	화, 목, 금	가정학과, 재활치료, 재활치료



‘최고를 지향하는 인간중심의 참 병원’

고려대 안산병원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평생건강의 동반자 고려대안산병원 종합검진센터

지금!! 별관 1층 종합검진센터를 방문해주세요

- |  |  |
|--|--|
| <b>종합건강진단 프로그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종합 검진</li> <li>■ 효도검진</li> <li>■ 예비부부 검진</li> <li>■ 암 정밀검진(Pet-CT)</li> <li>■ CEO 종합검진</li> <li>■ 소화기 / 폐 / 심장 / 뇌졸중 / 척추 정밀검진</li> </ul> | <b>상담 및 예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화예약 031412-5865, 5866</li> <li>인터넷예약 health.kumc.or.kr</li> </ul> |
|--|--|

고려대 검동사끼는 고려대학교 의료 연구

Medical Pride KUMC for Global KU - Frontier Spirit

[중려대 안산 - 구로 - 안산병원의 의료 인프라]

**5,200** 여명의 세심한 서비스  
당일명당 2,300 여명 / 구로병원 1,800 여명 / 안산병원 1,200 여명

**2,577** 개의 첨단 병상  
당일명당 2,000 개 / 구로병원 1,000 개 / 안산병원 500 개

**33만**m<sup>2</sup>의 갤러리

최음 보는 병원인데, 누구세요?

고려대학교안산병원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인간중심의 참의료를 실천하는 병원 - 모든 환자 과객에게 호텔처럼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 어디서나 착함을 감상할 수 있어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갤러리 같은 병원 - 고려인 암환자 무료진료, 우즈베크 미숙아 진료지원 등 인류애를 실천하는 병원 - 스키장, 파카스탄 지원 등 전세계 긴급구호에 앞장서는 병원 -

고객을 위해 모든 것을 변화시킨

## 고려대 안산병원입니다

- 긴급수술에서 수술까지 One-stop 응급체계 구축
- 최내역, PET CT, 3.0T MRI, 64 채널 CT 등 첨단 진료장비 도입
- 급성뇌졸중 대처 A등급 병원(2007년 심평원 선정)
- 첨단시설 갖춘 심혈관센터 등 질환별 특색화한터 운영

<http://ansan.kumc.or.kr>

대표 전화: 031412-5114    응급실: 031412-5381    F A X: 031412-5659



